

박지원 “국민의당 후보 대통령 만들겠다”

당 대표 출마 선언 “안철수·손학규 등 대선 드림팀 만들것”

황주홍·김영환·문병호와 4파전…정동영 불출마 흥행 비상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2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던 정동영 의원은 이날 지도부 경선 불출마를 선언, 전 당대회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박 전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는 당 대표가 되겠다. 국민의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당권 도전의 뜻을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앞에는 조기대선과 개헌, 다당제 등 큰 삼각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하고, 정권창출도 해내야 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큰 정치력으로 큰 판을 만들어 미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을 재창출한 사람, 이겨 본 사람,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 미래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륜을 부각했다.

또 “안철수·전정배 전 공동대표를 대선 후보로 우뚝 세우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을 모셔 대선 드림팀을 만들겠다”며 “플랫폼 정당론’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과 함께 전

당대회가 끝나면 당을 대선 체제로 전환, 원외 위원장과 지방위원을 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에 배치하고 ‘수권비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 전 원내대표와 강력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동영 의원은 이날 지도부 경선 불출마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위기 상황에서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고심 끝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정 의원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당의 진로와 쇄신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당 전당대회 흥행에 먹구름이 형성됐다. 2일 현재, 대표를 포함해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지도부 경선에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황주홍 의원, 김영환·문병호 전

의원 등 4명만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전대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조만간 지도부 경선 참여 후보가 추가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중량급 인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 내외에서는 당권 경쟁에 있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 당원들과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 지원을 받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독주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동영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당 전대는 김이 빠지게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정치적 각을 세우고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찾은 2野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형석)과 전남도당(위원장 이재호) 당원 및 당직자 200여명이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정권교체를 다짐하고 있다(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주승용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와 당직자, 당원 250여명이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앞 민주의문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나명주·김진수 기자 mjna@kwangju.co.kr

김동철 “野 분열의 장본인 문재인과 통합 없다”

국민의당 ‘광주선언’

국민의당이 2일 광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비박계’와 손잡으면 호남 배반’ 발언에 강도 높은 비난으로 응수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당직자 250여명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광주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계파 패권에 안주하고 호남인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정치인과의 통합은 없다”며 전남 광주 무등산을 찾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의를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일축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개헌을 반대하면

서 국가 대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권을 분열시킨 장본인으로 서 통합을 제안할 자격도 없다”고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광주선언을 통해 “친문·친박은 즉각 호헌논의를 철폐하고 개헌을 추진하라”며 “패권주의 정치세력의 양심적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속도 내는 野 ‘게임 룰’

졸속 경선 우려 조기 대선체제 시동

야권에서 ‘게임의 룰’ 논의가 속도를 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는 흐름 속에서 경선 준비를 서둘러 졸속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많아서다. 여기에는 범 보수진영 유력주자로 떠오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계기로 세력 재편과 대선 체제 전환에 돌입하려는 흐름도 의식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

지금까지 야권에서는 조기 대선준비에 들어갈 경우 자칫 ‘권력잡기’에 몰두한다는 비난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단 탄핵 후 국정공백 사태 수습에 집중하면서 경선과 관련한 언급은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일부 주자들 사이에서 빨리 경선 일정을 정해 달라는 주문이 나온 데다, 준비를 더 미룰 경우 경선이 졸속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각 당의 경선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경선 일정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당에 조속한 경선 논의를 요청했다”며 “자치단체장들로

서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정책토론회 등을 열면서 이제까지보다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현재의 탄핵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반대로 이제 경선 일정을 드러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뜨거운 감자”인 경선 물에 대한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역시 오는 15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경선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지상과제로 강력한 대권후보 선출과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제시한 만큼, 지도부가 선출되면 곧바로 경선 준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당내 유력한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도 15일 전당대회 직후 대선 캠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른 주자들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춰 대선 레이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역시 14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 조기대선 체제 이행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손학규 “安·潘 참여 빅텐트 가능성”

제 3지대 독자세력화를 추진 중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빅텐트’론에 대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MBC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 뒤, “앞으로 반 전 총장이 귀국해서 어떤 행보, 어떤 말을 할지를 보고 개혁보수진당이 앞으로 정강·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보면서 금년 1월이 지나서 2~3월에는

우리나라 정치에 커다란 빅뱅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전망했다.

손 전 대표는 오는 22일 자신이 추진하는 ‘국민주권 개혁회의’ 출범식을 열고 독자세력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정당을 초월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비리들, 국정농단의 기득권 특권, 패권시대를 거부하고 국민이 주권의 중심이 되며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체성에 동의한다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원순 “결심 섰다” 대권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며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 평생을 혁신과 공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는 시대적 요구

에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그동안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시대 요구와 소명이 있는지 고만하고 있다고 답해왔다. 또 최근 촛불정국에서 국가 개혁을 주제로 하는 거리 토론회에 거의 매일 참석하고 최근 2주 연속 광주와 순천 등 호남지역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해 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부근 남동측 토지 864.8㎡ 건물 1514.31㎡ 감정이 20억7천2백 ▶ 최저가 14억5천
- ★ [공장] 광주시 북구 일곡동 OB맥주 광주공장 부근 토지 1872.59㎡ 건물 1540.1㎡ 감정이 13억7천2백 ▶ 최저가 9억6천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이 11억 ▶ 최저가 7억7천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이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이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이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이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이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계획관리지역.생산물리지역 토지 23,147㎡ 매매가 평당10만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사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층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8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원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